

주관적 연령지각과 관련요인에 관한 개관

윤 유 경

공군사관학교

본 연구는 연령의 대안적 개념으로서 주관적 연령을 제시하고 있다. 주관적 연령이란 자신의 생활 연령과 관계없이 자신이 스스로 지각하는 연령이다. 주관적 연령은 건강, 가족구조, 사회경제적 지위, 취업상태, 소비자 행동 등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생활 연령보다 개인의 내적 상태를 더 잘 나타내기도 한다. 본 연구의 접근방법은 연령을 자기지각의 차원에서 분석하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인간발달에서 이러한 주관적 연령지각의 양상은 사회적으로는 이상적 연령을 기준으로 그 특성이 나타나며, 개인적으로는 자아 존중감이나 지능 등과 관련되어 심리적 기능을 내포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간은 누구나 나이를 먹는다. 그러나 '자신이 느끼는 만큼이 자신의 나이이다'(You're only as old as you feel)라는 말이 있듯이 같은 연령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연령에 대한 지각은 사람마다 다르다.

인간의 발달과 쇠퇴는 단순히 경과된 시간에 의해서만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경과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연령을 논할 때, 단순히 실제적 나이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 밖의 다른 요인들을 함께 고려해야 연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

실제로 같은 생활 연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그들이 같은 주관적 연령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건강, 결혼, 사회경제적 지위, 직업유무에 따라 주관적 연령의 지각은 변화한다 (Barak & Schiffman, 1981; Barak &

Stern, 1986; Barak, 1989).

즉, 주관적 연령(subjective age)이란 자신의 생활 연령(chronological age)과 상관없이 자신이 스스로 지각하고 있는 연령이다. 따라서 주관적 연령은 한 개인이 발달상 겪게 되는 경험의 영향을 받으므로 생활 연령보다 그 개인의 내적 상태를 더 잘 반영하기도 한다(김원경, 1990; 손원숙, 1993; 윤유경, 1996).

이러한 주관적 연령 지각에 대한 접근은 주관적이고 사적 경험을 중시하는 현상학적 접근 방법이다(윤유경, 1996). 즉 개인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개인 지각이 연구의 대상이 된다. 이는 사건이나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이론적인 틀을 설정하지 않고 개인이 경험하는 사건과 현상을 그대로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현상학적 접근은 행동보다는 내적 정신과정을 강조한다. 이는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알 수 있는 것보다 사람들이 자기자신과 자기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연구함으로써 인간 본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주관적 연령에 대한 연구를 보면, 초기는 주로 인구 통계학적 변인인 성별, 교육, 직업, 사회 경제적 지위가 주관적 연령 지각에 미치는 영향들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주관적 연령지각을 예측하는 심리적 요인에 대한 설명은 1950년대 이후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관적 연령지각과 관련된 심리적 기능들만 설명할 뿐, 주관적 연령지각의 양상이 왜 나타나는지에 관한 분석을 하지는 못했다. 이에 1980년대는 주관적 연령지각이 일어나는 기본 기제에 대한 연구가 부각되었다(Barak, 1986).

한편, 지금까지 주관적 연령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성인후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조망을 확장하여 전생애 측면에서 발달 단계에 따른 연령지각의 양상과 그 기제를 알아보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론적 논점들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주관적 연령은 인간을 행위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 봄으로써 심리학적 연구 접근법의 다양성을 모색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 주관적 연령은 연령지각이 심리적 기능과 관련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연령의 대안적 개념을 제시해 준다. 따라서 주관적 연령이 제시하는 개념들을 분석함으로써 발달 심리학 뿐 아니라 연령을 주제로 한 연구에 다양한 의미의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령 개념의 다양화는 같은 연령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 사회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는 점에서 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관련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주관적 연령지각의 실제적 적용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주관적 연령의 측정

지금까지의 주관적 연령을 측정하는 방식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Barak, 1986). 첫째는, '정체감 연령'(identity age)으로 이는 자신을 젊은이(young), 중년(middle), 노년(old)의 세 연령 참조그룹 중 하나로 평정하는 것이다. 둘째는,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연령'(feel age)으로 자신이 실제 몇 살로 느껴지는지를 생활 연령과 비교하여 실제 숫자로 응답하는 것이다. 셋째는, Kastenbaum, Derbin, Sabatini, Art(1972)가 제안한 '개인적 연령'(personal

age)이다. 이는 주관적으로 경험되는 기능적 연령(functional age)의 특별한 형태로 4개의 기능적 연령 차원(functional age dimension)에 의해 평가된다. 즉, 몇 살로 느껴지는지(feel age), 자신이 몇 살로 보이는지(look age), 몇 살처럼 행동하는지(do age), 자신의 관심사를 반영한다고 생각되는 연령은 몇 살인지(interest age)를 연령지각의 구성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넷째는, '인지 연령'(cognitive age)으로 Barak(1986)가 사용한 '정체감 연령'과 '개인적 연령'을 혼합한 개념이다. 앞의 네 개의 개인적 연령차원에 따라 주관적 연령을 측정하는데, 연령 참조그룹에 따라 10년을 단위로 자신들을 평정한다(10대, 20대, 등). 다섯째는, '고정관념 연령'(stereotype age)으로 이는 사람들에게 연령지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George·Murtain·Pennybaker(1980)가 사용한 12개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각 문항은 극단적 의미를 가진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응답하는 사람은 각 문항이 자신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평가한다.

주관적 연령지각의 발달적 양상

인간발달 단계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모두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 양상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발달과정은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영향을 받고 있으며 역으로 이들 요인들의 상황 지각은 자신의 발달단계를 규정하기도 한다.

청소년기부터 노년기까지 주관적 연령 지각 양상을 살펴 본 연구들(Barnes - Farrell, 1989; Kastenbaum, 1979; Montepere & Lachman, 1989)은 각 연령층에서 보이는 연령의 지각 양상에 차이가 있다.

14세에서 83세 까지 미국인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통해 Montepare & Lachman(1989)이 연령지각의 양상을 비교한 결과, 미국의 10대인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실제 연령 보다 더 나이들게 지각하고 있었으며, 20대인 성인 초기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연령과 비슷하게 연령을 지각하고 있었고, 30대가 넘어선 사람들은 실제 자신의 생활 연령보다 더 젊은 주관적 연령을 가지고 있었다.

대체로 성인초기의 사람들은 문화에 관계없이 실제 연령과 주관적 연령 정체감 사이에 불일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원경, 1990; 손원숙, 1993; 윤유경, 1996). 그러나 20대 이후는 주관적 연령과 생활연령의 차이가 점점 증가하였다. 실제 이러한 차이는 한국의 경우, 30대에는 평균 5.12세, 40대에는 5.46세, 50대에는 9.17세, 60대 이상은 13.4세로 나타났다(윤유경, 1996).

그림1. 에서 보듯이 한국 사람들의 생활 연령에 따른 주관적 연령지각의 양상은 10대는 더 나이 들게, 20대는 자신의 나이와 같게, 30대 이후는 자신의 나이보다 더 적게 연령을 지각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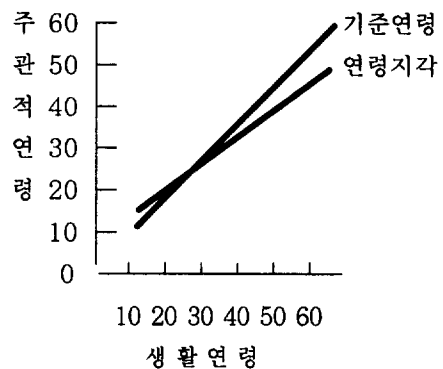


그림1. 생활연령에 따른 주관적 연령의 지각

었다. 30대 이후의 생활 연령과 주관적 연령간의 불일치는 생활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점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외국과 비교해 보면, 서구 문화도 이러한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Barak·Stern·Gould(1988)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30대는 평균 1.38세, 40대는 5.55세, 50대는 6.84세, 60대는 10.48세를 생활연령보다 더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구문화의 경우, 한국보다 생활연령과 주관적 연령지각간의 불일치는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연령지각에 관한 이론적 설명

연령지각 양상은 청소년의 경우, 아동기에서 성인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므로 자신을 독립적인 개체로 인식하려는 내적 자아상이 반영되어 실제 보다 더 나이 들게 지각한다. 성인기 이후는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 관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로서 주관적 연령은 생활연령보다 젊게 갖으려는 경향을 보인다.

청소년이 보이는 주관적 연령지각의 양상은 여러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전환기이다. 청소년들은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며(Erikson, 1963), 자신의 또래보다는 더 성숙하고 어른이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자신의 생활 연령 보다 더 많은 주관적 연령 정체감을 보인다. 이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겪는 사회적 불이익을 자신들로부터 분리해 내기 위해서 실제 나이보다 더 많은 연령지각을 하는 것이다(Montepare & Lachman, 1989).

한편, 성인기 이후 연령지각 특성은 크게 두 가

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늙었다'는 낙인으로 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들을 더 젊게 지각한다는 것이다(Peters, 1971; Ward, 1977). 이러한 주장은 노화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social stereotype) 혹은 사회적 낙인(social labeling)에서 비롯된다.

현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중 '노인' 혹은 '노화'에 대한 고정관념은 부정적이다(Bultena & Powers, 1978; Ward, 1977).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내리는데 있어서 '노화'를 인정하게 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정적 가치들을 받아 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주관적 연령지각을 보다 젊게 하여 노화를 부정하게 되면 자신들의 긍정적 자아상을 유지할 수 있다(Barnes-Farrell, 1989).

이러한 낙인이론(labeling theory)의 초기 개념과 적용은 사회적으로 이탈된 행동이나 행위자로 정의되는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그 예로 Scheff(1966)는 낙인을 받은 사람은 낙인에 대한 내면화를 증진시키고 이탈된 행동을 조장시키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의 낙인이론들은 사회에 의한 낙인의 수용에 저항하는 개인의 동기들에 관심을 갖는다. 사람들은 낙인에 연합된 부적 가치로 인해 낙인에 저항하도록 동기부여 된다. 이는 낙인이 자아 개념에 위협을 주기 때문이다(Allen, 1982). 개인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거부하도록 동기부여 하는 이러한 과정들은 자아상에 영향을 주며 행동 유발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노화'라는 것은 사회적, 신체적, 지적으로 무능력하다는 통념 때문에 부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이러한 낙인은 행동에도 직접 영향을 준다.

낙인의 수용은 자신의 낙인과정(private self

labeling process)을 통해 더욱 심화된다(Thoit, 1985). 이는 다른 사람에 의한 낙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낙인을 통해 실제로 기준 이탈의 반응으로 행동이 방향지어 진다.

Kuypers & Bengson(1973)은 이러한 낙인에 대한 사회적 상호작용과 자아상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늙었다'는 낙인은 '무능하다'는 자아상을 심어주며 이러한 부정적 기대는 실제로 생산성이나 성취도에 영향을 주었다.

연령지각 양상에 대한 두 번째 설명은 준거집단 이론(reference group theory)이다. 준거집단은 두 가지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Kelly(1968)에 따르면, 준거집단이란 가치나 기준을 제공해 주며(규준적 기능) 자신의 생활상을 비교할 수 있는 참고자료의 역할(비교의 기능)을 한다. 자신의 상황을 남과 비교하여 그들의 상황을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자아개념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중기 이후 보다 젊은 주관적 연령을 지닐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일반적인 연령기준에 얼마나 부합되는지의 정도와 주변 생활과의 비교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청소년기와 마찬가지로 성인중기 역시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변화를 동반하는 전환기이다. 특히 성인중기는 성인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이며,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활연령에 비해 더 젊은 혹은 더 많은 주관적 연령 정체감을 경험하는 것은 인간발달의 전환에 동반되는 자아개념을 반영한다(Bultena & Powers, 1978; Montepare, 1989).

한편, 성인초기의 사람들은 실제 생활연령과 주관적 연령 정체감 사이에 불일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는 사회적 요인과

도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성인초기가 사회에서 규정하는 이상적 연령(ideal age)이기 때문이다(Barak 등, 1988; 윤유경, 1996).

이상적 연령(ideal age)이란 사람들이 개인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가장 원하는 연령이다(Barak 등, 1988). 이러한 이상적 연령에 대한 개념은 주관적 연령의 지각 양상을 예측하게 해 준다. 왜냐하면 주관적 연령의 양상이 이상적 연령을 중심으로 분포되기 때문이다.

Barak(1986)은 주관적 연령과 이상적 연령지각 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주관적 연령과 이상적 연령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상적 연령지각은 생활 연령과도 관련이 있었는데 이상적 연령은 생활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는 주관적 연령 지각 양상을 예측할 수 있었다(윤유경, 1996).

사람들은 자신의 연령이 이상적 연령과 일치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자신의 생활 연령이 이상적 연령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자아상에 위협을 받고, 결국 그들은 긍정적 자아상을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주관적 연령을 통제한다(Barak, 1988). 청소년은 자신들을 실제 연령 보다 더 나이 들게 지각함으로써, 성인기 이후는 이와 반대로 더 젊게 나이를 지각함으로써 보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는 것이다(손원숙, 1993).

자아(self)는 이상적인 자아(ideal self)를 지향한다(Rogers, 1951). 연령지각 또한 자아개념과 관련이 되고 따라서 사람들은 이상적인 자아를 형성하기 위해 연령지각에서도 이상적 연령을 지향하게 된다(윤유경, 1996).

지금까지 이상적 연령에 대한 연구를 보면, 미국의 경우(Barak, 1988), 평균 33.5세가 이상

적 연령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6.1 세로 나타났는데(윤유경, 1996), 이는 미국보다 이상적 연령이 매우 낮은 것으로, 우리 사회가 서구 문화보다도 더욱 젊음 지향적 사회임을 입증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상적 연령 지각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 또한 필요할 것이다. 그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노화에 대한 태도라고 할 수 있다(윤유경, 1996). 노화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면 이상적 연령은 하강한다(Chua Cote, Leong; 1990). 따라서 노화가 부정적인 사회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자아개념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연령지각을 좀 더 젊게 가질 것이다.

발달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노화에 대한 태도는 만 6세 경에 시작된다고 한다(Chua 등, 1990). 이는 인종과 성별에 대해 가지는 고정관념의 출현과 그 때를 같이 한다. 특히 문화는 이러한 노화에 대한 태도를 형성한다. 즉, 옛날 이야기나 TV, 일상 성인의 대화들이 노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문화의 영향은 국가간의 비교에서도 나타난다(Chua Cote, Leong; 1990). 미국에 사는 미국인, 미국에 사는 중국인, 중국에 사는 중국인을 비교한 결과, 노화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미국인은 중국인에 비해 주관적 연령지각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노화에 부정적인 문화를 가진 미국인이 중국인에 비해 노화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었고, 미국 문화에 노출된 중국인은 중국에 사는 중국인보다 노화에 대한 태도가 보다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노화에 대한 태도는 주관적 연령지각에서도 차이를 나타낸다. 중국과 미국의 경우, 노화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인 중국인들이 보다 부정적

인 미국인들에 비해 주관적 연령지각을 더 높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노화에 대한 태도가 결정적으로 주관적 연령지각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Chua, Cote, Leong; 1990).

따라서 한국인이 미국인에 비해 이상적 연령이 낮게 나타나는 것은 주관적 연령지각과 연관되며 이는 우리 사회의 노화에 대한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설명은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 이는 우리사회가 서구 사회보다 연령에 따른 발달과업을 더욱 강요하고 있는 문화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연령에 따른 부담이 이상적 연령을 더욱더 낮추게 만드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연구자들은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연령지각을 더 젊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Chua 등, 1990). 그러나 Montepare와 Lachman (1989)의 연구에서 이러한 현상은 성인초기에만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따라서 성인중기 이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더 젊게 지각하는 기제에는 부정(denial) 이외의 다른 기제도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준거집단 이론은 이러한 설명을 가능하게 해 준다(Bultena, 1978). 즉, 자신이 얼마나 일반적인 연령기준에 부합되는지, 혹은 또래보다 얼마나 젊다고 생각되는지에 따라 연령지각이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신체적, 심리적 기능이 쇠퇴가 급격하다면 젊다는 정체감을 갖기가 어려우며 자신의 연령지각은 이러한 기준들에 의해 결정된다.

주관적 연령지각의 관련변인

1. 생물학적 변인

인간발달의 변화에 수반되는 발달단계 지각에는

여러 요인들이 상호작용 한다.

특히 신체적 건강은 주관적 연령지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은 신체적 건강이나 성숙도가 연령지각에 기준이 되므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거나 성숙할수록 연령을 더 나이들게 지각한다(손원숙, 1993).

노인들은 건강이 좋은 경우 주관적 연령을 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 건강이 좋을수록 자신의 지각연령이 젊어진다(Baum & Boxly, 1983; Bultena & Power, 1978; Makides & Boldt, 1983). 이와는 반대로 건강상의 쇠퇴를 보이게 되면 스스로가 위축되어 주관적 연령 지각을 더 나이 들게 한다.

이는 건강이 주관적 연령지각에 결정적 요인임을 보여준다(Makides & Boldt, 1983; Baum & Boxly, 1983). 미국인의 경우 60대 이후, 의사에게 찾아가거나 입원하는 횟수는 주관적 연령 지각과 비례한다는 연구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한다(Murtan & George, 1982).

2. 인구통계학적 변인

주관적 연령지각과 성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상충된 결과를 놓고 있다. 일부 연구들은 이들 간에 어떠한 관련도 없다고 한다(Baum & Boxly, 1983; Linn & Hunter, 1979).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생활 연령이 증가할수록 연령지각을 더 젊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ultena & Power, 1978; 김원경, 1990). 이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연령에 대한 압력이나 젊음 지향적 기준을 더 많이 요구 받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65세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인종은 주관적 연령지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Linn & Hunter, 1979). 이는 주관적 연령 지각이 생물학적 영향이라기 보다 문화적 결과임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가족구조는 주관적 연령지각과 일관되게 나타나는 결과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Barak 과 Stern(1986)의 연구에서 30~69세 독신 여성들은 독신이 아닌 사람들보다 자신들을 더 젊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60세 이상의 독신 남녀들이 독신이 아닌 사람보다 자신을 더 나이 들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akies & Boldt, 1983). 이러한 차이점은 연구 방법과 사례수에 기인한다(Mutran & Geroge, 1983).

교육수준과 주관적 연령에 관한 연구는 미국에 사는 47세에서 96세를 대상으로 했을 때,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연령을 더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Mutran & George, 1982). 많은 연구자들은 교육 수준이 성인기 이후의 주관적 연령지각에 결정적 요인임을 주장한다(Barak, 1979; Bultena & Power, 1978; Markies & Boldt, 1983). 특히 교육수준이 주관적 연령지각과 관련된다는 것은 우리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즉, 생활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연령지각은 젊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윤유경, 1996). 이는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지적인 활동의 준거를 낮은 연령집단에 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취업 상태도 연령지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 사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집밖에서 전일제 근무를 하는 사람이 직업이 없거나 임시직을 가지는 사람보다 성인기 이후 주관적 연령지각을 젊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rak, 1979; Underhill &

Cadwell, 1983).

이는 은퇴와도 관련이 된다. 은퇴는 사회적 지위의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기적 사건이다. 은퇴 때문에 오는 직업의 상실은 낮은 자아 존중감 (self-esteem)과 부정적 자기평가의 원인이 된다 (김태련, 1987; 윤진, 1985). 연구결과 은퇴는 주관적 연령의 상승을 초래하였다. 은퇴는 주관적 연령지각과 정적으로 상관이 되어, 은퇴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신의 나이를 더 나이 들게 지각하였다(Barak, 1986).

이러한 직업관련 변인은 사회경제적 지위와도 귀결된다. 30세에서 69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사람은 생활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주관적 연령을 더 젊게 지각하였다 (Barak, 1986; Linn & Hunter, 1979; Peter, 1971). 특히 경제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연령증가에 따른 역할의 상실, 배우자의 죽음, 은퇴 등이 더욱더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이런 것들이 자신을 '늙었다' 라고 보는 지표로 강하게 인식하게 만든다(김원경, 1990).

가족의 구성도 연령지각과 연관이 있었다. 30세에서 69세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자녀와 손자녀의 나이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주관적 연령을 더 나이 들게 지각하고 있었다(Barak & Gould, 1985; Underhill & Cadwell, 1983). 한편, 55세에서 90세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녀나 손자녀의 수도 주관적 연령지각과 관련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와 손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사람들은 주관적 연령을 더 나이들게 지각하였다(Barak, 1979; Barak & Gould, 1985). 이러한 경향은 자녀나 손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고, 그에 따른 자신의 연령에서 발달적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문화에 따라 연령지각에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혀준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는 서구 문화보다 자녀수가 많은데 비해 주관적 연령지각은 서구문화 보다 젊게 한다. 이는 자녀수가 주관적 연령지각에 영향을 미치지만, 다른 요인들이 모두 통제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단일한 효과이다. 따라서 모든 문화적 요인이 연령지각에서 고려된다면, 다른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거나 요인간의 가중치가 고려되어 연령지각이 나타난다.

한편 노인의 경우, 노인단체 가입이 주관적 연령지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aum & Boxley(1983)의 미국의 70대 노인에 대한 연구에서 노인단체에 가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주관적 연령지각을 더 나이 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연령을 수용하느냐가 주관적 연령지각과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George, Murtain, Pennybaker (1980)의 47세에서 96세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아 일관된 연구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3. 심리, 사회적 변인

Kuypers 와 Bengson(1973)은 자신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정체감이 형성되면 그에 따른 부적 가치로 인해 사회, 심리적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젊은 연령 정체감을 갖는 것은 그들의 사기 수준과 관련이 있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Linn과 Hunter (1979)의 연구는 심리적 기능으로 내외통제성, 심신증, 불안, 우울,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self-esteem), 인지능력을 설정하고, 주관적 연

령 지각과 심리적 기능과의 관련성을 분석해 보았다. 연구결과 성인기 이후 주관적 연령을 적게 지각하는 사람일수록 내적 통제소재를 많이 사용하며, 생활 만족도와 자아 존중감이 높았고, WAIS 상식검사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자아개념과 심리적 특질도 주관적 연령지각과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 존중감, 자기 확신감, 내의 통제성(locus of control), 삶의 목적 지향성, 지능은 주관적 연령지각과 관련되었다(Barak, 1979; Barak & Gould, 1985; Baum & Boxly, 1983; George et al: 1980).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내의통제 소재

선행연구 결과 내의통제 소재는 주관적 연령 지각과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Linn & Hunter(1979)의 연구는 내적 통제를 많이 사용할수록 주관적 연령 지각을 젊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의통제 소재는 주변환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한다. 따라서 자신을 실제의 나이와 다르게 지각한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부정이지만 이러한 부정은 내적 통제력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유경, 1996)에서 이러한 특징은 60세 이상에만 나타났다. 이는 내의통제성이 성인후기에만 주관적 연령 지각의 유의한 예측 변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생활 만족도

생활 만족도와 주관적 연령지각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들도 그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는다. 40세 이상만을 대상으로 한 김원경의 연구(1990)에서 생활 만족도는 주관적 연령지각을 예

측할 수 있었다. 즉 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주관적 연령을 생활 연령보다 젊게 지각하였다. 그러나 손원숙(1993)과 Montepare 등(1989)의 연구는 생활 만족도가 20대 이후의 주관적 연령지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관적 연령지각과 생활만족도와의 관련성은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생활만족도와 주관적 연령지각이 성인 중기 이후에만 연관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3) 자아 존중감

현대사회는 젊음 지향적 사회(youth-oriented society)로서 노화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Pillip, 1961). 따라서 노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 사회에서 생활연령이 증가하면 연령에 따른 자아 존중감은 하락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성인기 이후 자신의 노화를 부정한다는 것은 현실에 대한 부정일 수도 있겠지만 심리적 적응을 위해 필요하기도 하다. 자신을 젊게 지각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자아상이 지속되고 자기 확신감이 생긴다. 오히려 자신을 생활연령보다 나이들게 지각하는 사람은 개인적인 무가치감이나 불안정성을 갖기 쉽다(Linn & Hunter, 1979; Ward, 1977).

Linn 과 Hunter(1979)는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자신을 젊게 지각하는 것은 높은 자아 존중감과 관련된다는 것에 대해 두 가지 설명을 하고 있다. 하나는 노화와 관련된 사회적인 평가절하를 면하려는 일종의 방어기제라는 것과, 또 하나는 활동적이며 독립적인 사람은 자신을 늙었다고 지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10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자신들을 실제 연령보다 더 나이들게 지각하는 것

이 더 높은 자아존중감과 관련된다(Montepare & Lachman, 1989). 이 시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가는 전환기로서 좀 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특성을 가지려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적응상의 문제를 잘 해결한 사람은 또래보다 더 많은 연령 정체감을 소유하며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지게 된다.

결국 성인기 이후의 노화에 대한 부정(denial)은 성공적 노화를 증진시키는데 하나의 적응적 도구로 사용되며, 청소년기는 보다 나이 들게 지각하는 것이 높은 자아 존중감과 관련된다(Bultena, & Power, 1978; Linn & Hunter, 1979; Peter, 1971; 김원경, 1990; 손원숙, 1993).

4) 인지능력

청소년기와 성인기 이후의 주관적 연령지각의 양상은 여러 심리적 기능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는데 인지능력도 주관적 연령지각과 관련이 있다(Linn & Hunter, 1979).

사람들은 성인기 이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지능력도 쇠퇴한다고 생각한다(Culter & Grams, 1988; Ryan, 1992). 그러나 인지기능의 쇠퇴를 설명하는 연구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 인지기능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한 부류는 인지기능의 쇠퇴를 당연시하는 연구자들로서 그들은 인지기능의 쇠퇴 양상에 관심을 둔다. 이에 반해 또 다른 관점의 연구자들은 인지능력의 기대는 현실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만일 이러한 기대가 변화된다면 인지능력의 쇠퇴 또한 변화된다고 한다(Lachman, Weaver, Bandura & Lewkowicz, 1992). 따라서 이들은 성인기 이후의 인지 능력을 평가하는데 반드시 환경적 요

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신의 노화를 바라보는 사회적, 심리적 관점이 성인기 이후의 인지능력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그 예로 미국 노인보다 중국 노인이 노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인지 능력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즉 인지능력에서 중국 노인은 미국 노인보다 우수하였다(Lecy & Ranger, 1994).

59세 이상을 대상으로 미국인과 중국인을 비교한 결과, 미국인들은 중국인보다 노화에 따른 인지능력의 쇠퇴를 더 확신하고 있었다 이러한 믿음은 실제 수행력에서도 반영된다. Levy와 Ranger(1994)는 미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기억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상 검사를 실시하였다. 회상검사는 즉시 회상, 지체 회상, 학습된 회상, 단서 회상의 네 가지였다. 이 네 가지는 모두 연령에 따라 회상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노화에 따라 인지능력의 쇠퇴가 당연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인지능력 검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노화에 관해 쇠퇴를 당연시하는 사람들은 노화와 관련된 증후에 행동적, 심리적 처치를 받지 않으려 하고 도전적 상황을 피하며 인지전략을 거의 세우지 않음으로써 인지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성인기 이후의 인지능력의 평가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Baltes & Shaie(1974) 등 전생애 발달심리학자들은 연령 증가에 따라 지능의 쇠퇴가 거의 없거나 극히 작다고 주장한다. 비록 지능의 쇠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능의 종류에 따라 변화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함으로써 종래부터 주장되어 오던 일률적인 지능 쇠퇴 가설에 도전하고 있다.

실제로 지능의 쇠퇴 정도는 지능검사가 포함하

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어떤 소검사를 중심으로 논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Wechsler 지능 검사의 경우, 지능 쇠퇴가 언어성 검사에서는 연령에 따른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동작성 검사에서는 그 폭이 컸다. 이러한 양상은 지능이 유동적(fluid)인지 결정적(crystallized) 인지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연령과 지능변화와의 관계를 논의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 속도 요인이다. Lorge(1936)의 연구를 보면, 시간 제한이 없는 역량검사(power test)는 연령 증가에 따른 지능의 쇠퇴가 거의 없었으나 시간제한을 두는 속도검사(speed test)는 지능의 쇠퇴가 컸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관적 연령지각과 인지능력과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생활연령과 주관적 연령 모두 언어능력을 예측할 수 있었다(윤유경, 1996). 특히 주관적 연령은 생활연령보다 언어능력을 더욱 강력하게 예측할 수 있었는데, 이는 주관적 연령이 결정적 지능(crystallized intelligence)을 반영함을 의미한다.

한편 생활 연령과 주관적 연령이 추리력과 도형 지각 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지 분석해 본 결과(윤유경, 1996), 주관적 연령 지각은 어떠한 설명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언어능력만이 주관적 연령지각의 유의미한 예측 변인이었다는 것은 또 다른 시사점을 준다. 언어능력은 주로 경험, 교육 및 훈련을 통하여 획득된 결정적 지능이다. 이에 비해 추리력, 도형지각 능력은 개인이 습득한 지식, 경험, 학습과 관계없는 일반적인 정신능력이다. 따라서 주관적 연령은 경험, 교육 및 훈련에 의해 획득된 지식을 예언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경우, 실제 나이보다 주관적

연령지각을 많이 할수록 지능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윤유경, 1996). 이는 10대의 연령 지각과 심리적 기능 간에는 다른 기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5) 소비자 행동특성

주관적 연령지각에 대한 연구는 소비자 연구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는 단순한 소비자의 인구 통계학적 변인들 보다 주관적 연령의 지각이 심리적, 사회적, 행동적 특성을 더 잘 반영한다는 취지이다(Barak, 1986).

소비자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성인기 이후 연령 지각을 젊게 하는 사람들은 외모에서 전통성을 고수하지 않고 패션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Barak, 1979; Barak & Gould, 1985). 특히 다변량 연구 분석 결과, 전통성을 고집하지 않는 것은 주관적 연령지각의 강력한 예측요인이었다.

이외에도 연령지각을 젊게 하는 사람들은 모험을 즐기며, 집에만 있지 않고, 물건을 사는데 있어서도 가격에 덜 민감하였다(Barak & Gould, 1985). 또 자신을 젊게 지각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물건이나 서비스, 아이디어를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외에도 주관적 연령지각을 젊게 지각하는 사람은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며, 과업 지향적으로 활동하고, 자원봉사를 하며, 문화생활을 즐기고, 레저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ilkes, 1992). 즉 활발한 활동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자신의 연령보다 젊다고 지각하고 있는 것이다.

성격적으로도 성인기 이후 자신을 젊게 지각하는 사람은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여론의 리더로 활동한다(Schiffman & Kanuk,

1983). 여론의 리더는 혁신성과도 관련이 있다. 특히 55세 이상의 여성들에게서 이러한 성향은 두드러지는데 이러한 특징 때문에 주관적 연령지각은 소비자 연구와 관련된다. 즉 보다 젊게 지각하는 사람과 더 나이들게 지각하는 사람은 동일한 연령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활패턴이나 소비 수준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6) 성역할

한편 성역할도 주관적 연령지각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ugliesi(1983)는 남성성이나 여성성이 연령지각과 서로 관련될 것으로 예측하고 주관적 연령지각과 성역할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남성성이 높은 사람은 주관적 연령지각을 젊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성이 여성성 보다 높은 자아존중감과 연관된다는 선행연구(Barak & Gould, 1985)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으로 여성성 보다 남성성이 사회적응에 바람직한 특성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이는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연령지각과 매개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4. 행동적 변인

어느 사회에서건 사회는 그 나이에 적합한 행동들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적 특징들은 연령 지각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Wood, 1971). 즉, 어떠한 행동들을 보이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나이를 지각하는 정도를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관적 연령지각과 관련된 행동적 변인의 관련성은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연구에 의하면 성인기 이후 TV 시청과 독서는 연령지각과 관련이 없었으나 라디오 청취시간은 주관적 연령지각과 역 상관성이 나타났다(Barak &

Gould, 1985). 그러나 그 대상을 달리했을 때, 주관적 연령지각은 TV 시청과는 정적, 독서와는 부적의 관련성이 있었고 라디오 청취와는 무관하게 나타났다(Barak, 1979). 이는 TV 시청의 경우, 반응양상이 매우 수동적이며 대중적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인지적 노력이 필요치 않은데 비해, 독서는 어느 정도의 교육 정도와 생활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령지각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연령지각과 일관되게 나타나는 행동 특성은 샴푸하는 횟수, 샴푸 브랜드 바꾸는 정도, 전화하기, 외식, 운동하기, 컴퓨터 게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동은 주관적 연령지각과 역으로 상관이 되었다(Barak, 1979). 이는 모두 평소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는 것으로 소비수준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는 주관적 연령지각이 경제적 생활정도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행동 양태들이라 할 수 있다.

논 의

지금까지 논의된 주관적 연령지각에 관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의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주관적 연령 지각의 양상은 발달단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는 이상적 연령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주관적 연령지각은 청소년기인 10대에는 더 나이 들게, 성인초기인 20대는 실제 연령과 비슷하게, 이상적 연령을 지난 30대 이후는 더 적게 지각하려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성인기 이후에 나타나는 실제 연령과 연령지각 간의 불일치 현상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점 커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이상적 연령이 변화한다면

주관적 연령지각도 변화할 것임을 예측하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은 이상적 연령이 노화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간의 연구에서, 이상적 연령 지각에 영향을 주는 것은 노화에 대한 태도였다.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면 이상적 연령은 더 높게 지각될 것이고, 이러한 경향은 성인중기나 후기의 주관적 연령 지각과 실제 연령의 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젊음에 대한 열망은 더욱 강해져 이상적 연령은 점점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성인기 이후의 연령지각과 실제 연령과의 불일치는 그 차이가 오히려 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사회적 시각이 이상적 연령을 형성하고 사람들은 이를 지향하기 위해 자신의 연령지각을 주관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주관적 연령의 지각은 사회적 영향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 문화적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즉, 사회, 문화적으로 노화에 대한 시각이 바뀐다면 연령지각은 상당 부분이 조절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주관적 연령지각은 사회적 고정관념이론(social stereotype theory)이나 사회적 낙인이론(social labeling theory)으로 그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즉, 연령 증가에 따른 자신의 부적 가치를 그대로 인정하기보다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더 좋은 심리적 기능을 유지하며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을 젊게 지각한다는 것은 심리적인 일종의 방어기제로 긍정적 기능을 발휘한다.

그러나 연령지각의 기제는 '부정'(denial)으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준거집단이론'(reference group theory)은 연령지각 기제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을 가능케 한다. 성인기 이후, 자신의 나이보

다 활동적이며 독립적인 사람은 자신을 또래 보다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소년의 경우도 또래보다 지적으로나 심리적, 신체적으로 성숙하면 자신은 더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연령지각이 일종의 '준거'가 되는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연령지각에 대한 이론들을 종합하면, 연령지각의 기제는 부정이나 준거집단이라는 단일적 차원에서는 설명될 수 없으며, 다차원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각할 때,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무의식적 부정만을 사용하지 않으며, 의식적인 준거에 의해서만 자신을 지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관적 연령지각은 무의식적 자기 보호 차원과 의식적 판단 기준이 서로 병행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단일 차원에서의 이론적 설명은 문제가 있다.

셋째, 발달적 관점에서 주관적 연령지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심리적 기능 중, 자아 존중감(self-esteem)은 주관적 연령지각에 강력한 예측변인이었다. 연구에 따르면(윤유경, 1996) 사람들은 동일시 상황에서 연령 동일시 정도는 같은 나이조건, 적은 나이 조건, 많은 나이 조건 순으로 나타났고, 각 조건마다 자아 존중감이 높은 상황은 낮은 상황보다 일관되게 동일시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연령지각이 연령지각에 개입된 개인의 부적 가치를 제거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을 가능하게 해준다. 따라서 연령에 개입된 가치를 긍정적으로 높여주면 사람들의 연령 동일시 정도는 상승하고 이는 연령의 지각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노화에 대한 태도가 사회적 관점에서 변화된다면 자신의 부정에 의한 연령지각 양상은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사회가 노화에 대한 관점을 긍정적으로 높여주

면, 주관적 연령지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노화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변화는 노인이 보다 긍정적인 기능을 보여줄 때, 또한 사회에서 그들에 대한 관점을 변화시킬 때, 주관적 연령지각이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결정적 지능(crystallized intelligence)은 주관적 연령지각에 예측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었다(윤유경, 1996). 이는 연령의 대안적 개념으로서 주관적 연령이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관적 연령은 생활연령보다 더욱 강력하게 결정적 지능을 예측할 수 있었다. 이는 연령의 현상학적 접근이 단지 사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심리적 기능을 내포하는 객관적 개념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정적 지능이 교육이나 훈련에 의해 향상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자신을 젊게 지각한다는 것은 이미 교육이나 경험을 내포한 개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사람들의 연령 정체감은 단순히 주관적 내적 상태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의 준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인지기능의 쇠퇴를 당연시하는 시각에 대한 반박이 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인지기능의 쇠퇴를 당연시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이 실제 수행력에서 반영된다는 연구(Levy & Ranger, 1994)에서, 성인기 이후의 인지기능을 평가하는데는 반드시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노화에 사회적, 개인적 관점은 자신에 대한 행동에 실제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노화에 대한 하나의 대안 제시를 가능하게 해 준다.

다섯째, 주관적 연령 지각은 소비자 행동과 관련된다. 성인기 이후 연령지각을 젊게 하는 사람

들은 건강정도, 교육 수준, 사회경제적 지위, 기타 심리 사회적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나이에 비해 모험심이 많고, 전통성을 고집하지 않으며, 소비성향이 높았다. 이는 광고나 소비자 연구에 시사성을 준다. 소비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나이를 그대로 지각하지 않으므로 광고나 소비시장에서 타겟 설정에 이러한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주관적 연령지각은 성인 중기 이후의 태도와 행동을 설명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용'이라는 광고의 문구가 노인의 구매를 감소시켰는데 이것은 노인이라는 낙인에 부적 가치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며 스스로를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Typper, 1994). 따라서 소비활동에서의 생활 연령은 모든 분야에서 독립변수로 유용하게 기능할 수 없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성인중기 이후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광고에서 광고모델이 자신과 같은 나이 보다 약간 어린 나이에 더 많은 동일시를 할 것임을 예측하고 있다. 이는 사람들이 자신과 동일한 나이로 보이는 사람과 반드시 동일시하지 않으며, 오히려 나이 많은 모델에 대한 가치는 상품에 부적으로 연합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몇 가지 제한점이 있음을 밝혀 둔다.

첫째는, 위의 연구들이 대부분 연구기간을 고려하여 단기횡단 연구로 이루어졌다. 한 연령층이 시간을 지나면서 주관적 연령지각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발달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동시집단 효과(cohort effect)를 고려한 연구설계를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장기 종단법을 이용하여 한 개인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겪게

되는 연령지각의 변화를 추적한다면 주관적 연령 지각과 심리적 적응에 대한 또 다른 분석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주관적 연령지각에 대한 설명이 부정(denial)이라는 방어기제와 준거집단 이론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설명은 유동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이 두 가지의 상호작용 양상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주관적 연령지각의 의미와 그 관련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대부분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연령에 대해 민감해 진다. 그러나 연령이라는 객관적 상황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개인적 상황이 반영되어 매우 다양하게 연령을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개인의 주관적 해석이 실존하는 심리적 실체를 반영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는데, 이러한 시도는 연령의 대안적 개념과 접근 방법의 다양화를 시도해 보았다는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또 다른 심리학적 접근방법의 다양화와 응용 연구의 시작이 되기 바래 본다.

참 고 문 헌

김원경(1990). 성인, 노인기의 주관적 연령지각에 따른 심리적 양상.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김태련, 장휘숙(1987). **발달심리학.** 서울: 박영사.
 손원숙(1993). 주관적 연령지각과 자아개념 및 생활 만족도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윤유경(1996). 주관적 연령의 예측 요인과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윤진(1985).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Baltes, P. D., & Shaie, K. W.(1974). Aging and IQ. *Psychology Today*, 7, 35-40.
 Barak, B., & Gould, S.(1985). Alternative age measures: A Research Agenda. In E. C. Hirshman & M. B. Holbrook(Ed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1(pp.53-58). Provo, UT: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Barak, B., & Schiffman, L. G.(1981). Cognitive age: A non-chronological age variable.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8, 602-606.
 Barak, B., & Stern, B.(1986). Subjective age correlates: A Research note. *The Gerontologist*, 26, 571-578.
 Barak, B., Stern, B., & Gould, S. J.(1988). Ideal age concept.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25, 146-152.
 Barak, B.(1989). Cognitive age: A new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measuring age identit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5, 109-128.
 Barnes-Farrell, J. L., & Piotrosky, M.J.(1989). Worker's perceptions of

- discrepancies between chronological age and personal age: You're only as you feel. *Psychology and Aging*, 4(3), 376-377.
- Baum, S. K., & Boxly, R. L.(1983). Age identification in the elderly. *The Gerontologist*, 23, 543-537.
- Bultena, G. L., & Power, E. A.(1978). Denial of aging: Age identification and reference group orientation. *Journal of Gerontology*, 31, 441-447.
- Chua, C., Cote, J. A., & Leong, S. M.(1990). The antecedents of cognitive age.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17, 880-885.
- Culter, N. E., & Grams, A.(1988). Correlates of self-reported everyday memory problem. *Journal of Gerontology*, 43, 582-590.
- Erikson, E.H.(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 George, L. K., Mutran, E. J., & Pennybaker, M. R.(1980). The meaning in measurement of age identity. *Experimental Aging Research*, 6, 283-298.
- Kastenbaum, R., Derbin, V., Sabatini, P., & Art, S.(1972). The age of my identification. *Journal of Gerontology*, 17, 437-439.
- Kelly, H.H.(1968). Two functions of referenced groups. In H. H.Hyman & E. Free Singer(Eds.), *Readings in Referenced Group Theory Research*.
- Kuypers, J. A., & Bengson, V. L.(1973). Social breakdown and competence. *Human Development*, 16, 181-201.
- Lachman, M., Weaver, S., Bandura, M., & Lewkowicz.(1992). Improving memory and control belief through cognitive re-struction and self-generated strategies. *Journal of Gerontology*, 47, 293-299.
- Lecy, B., & Langer, E.(1994). Aging free from negative stereotype. *Journal of Gerontology*, 37(1), 100-108.
- Linn, M. W., & Hunter, K.(1979). Perception of age in the elderly. *Journal of Gerontologist*, 34, 46-52.
- Lorge, J.(1936). The influence of the test upon the nature of mental decline as function of ag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7, 100-110.
- Montepare, J.M., & Lachman, M. E.(1989). You're only as old as feel: self-perception of age, fears of aging, and life satisfaction from adolescence to old age. *Psychology and Aging*, 4(1), 73-78.
- Mutran, E., & George, L. K.(1982). Alternative method of measuring role: A research note. *Social Force*, 60, 866-875.

- Neugarten, B. L., & Hagested, G. D.(1976). Age and the life course. *Handbook of Aging and Social Science*.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 Peter, G. R.(1971). Self-conceptions of aged, age-identification and aging. *The Gerontologist*, 11, 69-73.
- Phillips, B. S.(1961). Role change, subjective and adjustment : A Correlational analysis. *Journal of Gerontology*, 16, 347-352..
- Puglesi, J. T.(1983). Self-perceived age changes in sex role self concept.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6, 183-191.
- Rogers, C. R.(1951). *Client-centered Therapy*. Boston: Houghton Mifflin.
- Ryan, E. B.(1992). Belief about memory across life span. *Journal of Gerontology*, 47, 41-47.
- Scheff, J.(1966). *Being Mentally ill*. Chicago: Aldine.
- Schiffman, L. G., & Kanuk, L. L.(1983). *Consumer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 Shaie, K. W.(1975). *Age Change in Adult Intelligence*. N. Y.: Van Nostrand Reinhold.
- Thoit, P. A.(1985). Self labeling possession mental illnes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221-249.
- Typper, K.(1994). The role of labeling process in elderly consumer's response to age segmentation cu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0, 503-518.
- Underhill, L., & Cadwell, F.(1983). 'What age do you feel': age perception study.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1, 18-27.
- Ward, R. A.(1977). The impact of subjective age and stigma in older persons. *Journal of Gerontology*, 32, 227-232.
- Wilkes, R. E.(1992). A structure modeling approach to the measurement and meaning of cognitive ag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9, 292-301.
- Wood, V.(1971). Age appropriate behavior for older people. *The Gerontologist*, 11, 73-78.
- Zola, I. K.(1962). Feeling about age among older people. *Journal of Gerontology*, 17, 65-58.

1차 원고 접수 : 2000년 3월 31일

최종 원고 접수 : 2000년 8월 3일

A Review of Subjective Age Perception

You-Kyung Yoon

R.O.K. Air Force Academy

The present study was attempted to find out mechanisms and correlates of subjective age percep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dividuals in their teen hold older subjective age identity, whereas during the early adult years, individuals maintain same age identities. Across the middle and later adult years, individuals report younger age identities. Discrepancies between subjective and actual age are associated with better psychological functioning. Second, discrepancies between subjective and actual age are associated with personal attitude of aging and ideal age. Third, adults with younger age identities report higher self-esteem and better verbal scores than adults with accurate or older age identity, suggesting that subjective age identity is an important predictor to psychological function. Fourth, self-esteem mediate age segmentation. Assigning positive meaning to age segmentation promotes age identification. Fifth, age perception is associated with traditionality, venturesomeness, homebodiness, and price sensitivity.